

새로운 시대를 향한 자리매김



이사장 이강희

사천여 근로자의 뜨거운 의지를 모아
황량한 벌판 위에 기반을 다져서 교사를
짓고 인재를 널리 모아 개교한 지 십 년!
이제 우리 학교는 명문교로서의 확고한
자리 매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현실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 처해 있고 정보화, 세계화의 급류
를 타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는 다가오는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인간적인 교육을 위한 시대적 과제를 놓
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눈이 핑글핑글 돌아갈 정도로
세상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누
구도 내일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어렵습
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대를 '불확실성
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래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인
간이 어떻게 설계하고 노력하는가에 달
려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미래관을
펼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인간의 능력과
심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며
부정적인 미래관을 펼치는 사람들은 그
만큼 인간의 능력과 심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인항인 여러분들은 긍정적
미래관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
는 현명한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교육이 궁극적
으로는 보다 완전한 인간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
고 봅니다. 교육이란 말하자면 모두가 행
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룩하려는 인
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
각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
룩해 왔습니다. 그러나 능률을 올리기 위
해 서로의 경쟁을 부채질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너와 나의 공존 공영하는 의식보
다 남이야 어찌 됐던 나 혼자만이 즐겁
고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 사상이
팽배하게 된 점과 그리고 질서 의식의
결여, 도덕심의 타락에 이르게 되었습니
다. 우리 스스로가 당연히 지켜야 할 일
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강제적인 규범과 규칙
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계화로 향하는
문화 시민으로서 타율적으로 강제성이
가해져야만 규칙과 규범을 비로소 지키

게 된다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질서 의식과 공중 도덕을 잘 지키느냐, 못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바람직한 질서와 윤리의 미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개인의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학교 교훈의 둘째가 '봉사(奉仕)'입니다. 진정한 봉사는 대가(代價)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 보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외면과 괘시보다는 격려와 위로를 보낼 수 있는 인항인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孝'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을 성심 성의껏 대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우리 모두가 주저할 것입니다. 소학에서는 '혼정 신성(昏定晨省)'이라는 성어를 가지고 후학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물어서는 잠자리를 정해 드리고 새벽에는 부모님의 안색을 살핀다.'라는 이 성어가 지금의 현실과는 동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을 살피고 편안하게 해드린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항인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의 세계는 여

러분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강인한 도전 의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 는 것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우리가 민족사의 앞날을 가늠할 치열한 세계의 경쟁 시대에 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식과 기술의 무한 경쟁으로 대표 되는 경제 전쟁은 새로운 각오와 최첨단의 과학 기술을 겸비한 민족만이 번영할 수 있음을 현실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교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제도와 규범의 창조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 되고 있습니다.

본교는 해마다 학교의 열성적 지도와 가정의 변함없는 관심에 힘입어 대학 진학률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부상하여 사학의 명문 고교로서 자리를 굳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교에서는 30여 억을 들여서 대지 약 400평에 건평 1,016평,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3월 2일 기공식을 갖을 예정이며, 2000년 2월경에 준공하여 졸업식을 체육관에서 치룰 예정입니다.

이제 본교는 어느 학교 부럽지 않은 그러한 학교로 성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자상하시고 열성적인 교장 선생님이하 모든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 학부모님들 가정에 무한한 건승을 바라며, 또 쾌기와 노력으로 본교를 빛낸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